韓国語版

산인해안 지오파구

돗토리사구(중심부)탐색 지도

말뚝 상단에 붙어있는 번지를 참고로 하여 사구를 산책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사구를 발견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돗토리사구의 모래이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말뚝 위치도(돗토리사구경관보전협의회제공)

사구의 번지를 표시한 말뚝

- ●사구로 나가게 되시면 그림에 있는 조사용 말뚝을 찾아 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자연관찰해 주십시오.
- ●경계 말뚝 간의 거리는 100m입니다.
- ●천천히 걸어서 2분 걸립니다.
- ●시간과 체력을 감안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점의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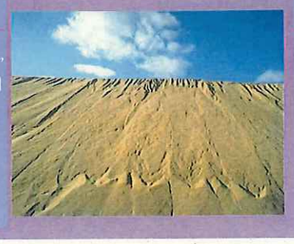
①제2사구열(말등) 약47m
②오아시스 약18m
③사구 입구계단·오르막 길 입구 부근 약54m
④문예광장 쪽 사구입구 부근 약66m
2007년 통계 시점 수치

풍문(風紋)

한쪽 면이 잔물결처럼 보이는 사구 특유의 풍경이다. 바람이 불며 모래 상태가 건조한 이른 아침에 볼 수 있다.

말등

제2사구열의 꼭대기를 이르는 말로 통칭"말등"이라 한다. 높이는 표고47m에 이르며 기복이 심한 웅대한 돗토리 사구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사렴(砂簾)

발을 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모양이다. 바람을 맞대하는 온화한 사구경사면 정상에 바람을 타고 기어 올라온 모래가 쌓이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반대편 급경사면에 미끌어 떨어지면서 생긴다.

오아시스

사구에 내린 비가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그것이 샘이 되어 지표로 솟아 난 것이다. 말등 기슭 부근에서 볼 수 있다.

산인해안국립공원·돗토리사구 이용에 관한 부탁 말씀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어 좋은 관광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오토바이로 넘어오지 말자.
※사구 경사면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그리지 말자.
※캠프장 이외의 장소에서 캠핑하지 말자.
※모래를 반출하지 말자
※애완동물을 풀어놓지 말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불꽃놀이를 하지 말자.
※다른 관광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말자.

돗토리사구의 초원화와 제초 추진 상황

돗토리사구는 돗토리평야 해안부에 동서16km, 남북2.4 km 규모로 펼쳐진 해안사구의 총칭이다. 돗토리사구 하면 모래 일색의 풍경이 떠오기 마련이지만 1970년경부터 사구에 본래 자라지 않던 외래식물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식물이 자라면서 모래의 이동이 적어져 아름다운 풍문과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본래 사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을 잃게 되는 등 사구 초원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초원화 상황 (1991년6월촬영)

환경청 (당시) 의 조사 결과, "현재 돗토리사구의 상태로 볼 때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축적되어 있는 모래를 활용하여 모래 이동이 수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초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 후 제초실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돗토리현, 돗토리시 및 후쿠베촌(합병을 거쳐 현 돗토리시)에서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초활동을 개시·시속하였다. 제초작업의 진전에 따라 현재는 사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2004년부터는 제초 자원봉사도 시작하여 현민과 협동으로 사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농기계와 인력에 의한 제초

기상, 식물, 농기계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제초방법(제초기계, 제초시기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조언을 얻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용기계에 의한 작업

모니터링 조사

사구에 가능한 한 적은 데미지를 주면서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식생, 지형, 모래이동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 종료 후에도 효과나 사구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다.

■돌아온 사구와 제초 자원봉사

돌아온 사구
사면이 보이고 있다.(2004 년)

제초 자원봉사
2004 년부터 시작되었다. 사구를 지키기 위하여 현내외에서 사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결한다.

○제초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처: 돗토리사구재생회의사무국 (☎0857-22-0582)

사구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사구식물)

돗토리사구에서 서식하는 18 종의 재래식물 가운데 주요 종을 소개합니다.

퉁보리사초(사초과)
모래가 쌓여있는 장소에 큰 군락지를 형성한다. 사구 내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시들면 잎의 섬유가 붓처럼 변한다.

갯메꽃(메꽃과)
해안부의 모래 제방이나 모래의 이동이 적은 절구형 지형의 벽면 등에서 볼 수 있다. 초여름에 나팔꽃같은 꽃을 피운다.

털잎하늘지기(사초과)
대체로 식물군락에서 자란다. 벨벳같은 미세모로 뒤덮여 있어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딱딱한 뿌리를 길게 뻗는다.

좀보리사초(사초과)
오아시스주변이나 건조되기 어려운 곳에서 자란다. 꽃이삭 상부에는 수꽃, 뿌리 쪽에는 암꽃이 핀다.

왕잔디(벼과)
옆으로 뻗는 땅속 줄기에서 지상 줄기를 만든다. 딱딱하고 가느다란 잎을 가져 세차게 불어대는 모래와 바람을 견딘다

순비기나무(마편초과)
사구지 유일의 포복성 목본식물로서 줄기를 모래 위나 모래 안으로 길게 뻗는다. 여름철에 꽃을 피운다.

갯씀바귀(국화과)
부드러운 줄기를 땅 및으로 직선으로 뻗어 잎부분만 모래위로 펼친다. 봄과 가을에 귀여운 꽃을 피운다.

갯쇠보리(벼과)
모래의 이동이 심한 곳부터 내륙부에 점재한다. 키가 크고 이삭이 두 갈래로 나뉘어 눈에 잘 띈다.

주 : 사구식물이라도 모래를 고정시켜 "살아 있는 사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초 대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구에 침입한 잡초군

사구에 침입한 잡초군 중 주요 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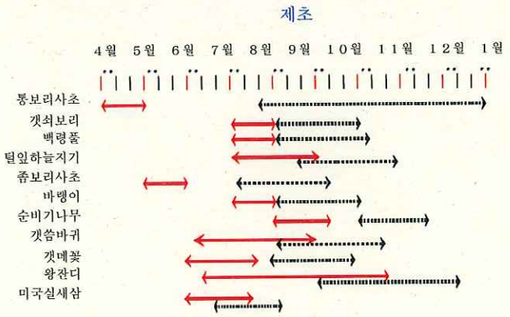
백령풀(꼭두서니과)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이다. 하얀색에서부터 연홍색까지 색깔의 꽃을 피운다.

바랭이(벼과)
도로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년생 풀. 밴위의 화서줄기를 방사형으로 내놓는다.

※모든 잡초도 여름철에 개화함.

주요식물의 개화와 종자산포시기

주) 2006 년, 실선은 개화기 점선은 종자산포시기



사진, 인용문헌

◇사구에서 자라는 식물 (사구식물) 사진 (재) 자연공원재단돗토리지부

◇사구에 침입하는 잡초군 돗토리사구경관보전조사보고서 (2004. 3. 31, 돗토리사구경관보전조사협의회, 이와사키씨, 시미즈씨 담당개소)

◇주요식물의 개화와 종자산포시기 돗토리사구경관보전조사보고서 (2004. 3. 31, 돗토리사구경관보전협의회, 나가마쓰씨, 도미나가씨 담당개소)